

■ 2022년도 대본공모 유통프로모션 주관처공모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 2022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유통프로모션 주관처공모 지원심의
- 회의일시 : 2022.9.19.(월) 14:00~18:00
- 회의장소 : 서울 종로구 토즈

본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연예술 분야의 대표적 단계별 지원사업인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품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낭독공연 등을 통한 작품 유통 및 확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는 총 7개의 단체가 지원 신청하였으며, 타 사업 지원신청서 양식사용 등의 결격사유로 인한 2개 단체를 제외한 5개 단체가 심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사업 운영에 대한 이해도와 더불어 사업 수행의 체계성과 전문성, 사업 성과의 공유확산 등을 비롯해 다수의 공연형 행사를 운영한 경험을 보유하고 이를 통한 성과가 우수한지, 행사 계획 및 관계자 대상 유통 및 프로모션 방안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또한 우수한 작품을 개발하고 공연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였습니다.

각 참가 단체들의 프리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운영의 취지에 대한 이해도와 차별화된 기획력, 신청 단체의 전체적인 운영 역량 등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창작산실 대본공모 선정 작품 유통프로모션이라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2개 단체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IP에 대한 관리 경험과 연극과 뮤지컬 두 개의 장르 모두에 대한 이해도에서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은 단체가 근소한 차이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공연 예술의 시작점인 대본은 공연으로서 관객을 만났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인 우수한 대본의 유통과 확장을 통한 공연화를 위해서는 작품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단체들이 작품의 발전을 위한 방안보다는 유통 프로모션 프로그램 자체를 주체로 두고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가능성 있는 대본들이 공연화되어 관객과 만나며 공연예술계가 활기를 띠고, 그 활기 속에서 창작자들이 다시 좋은 작품을 창작해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유통프로모션 주관처 공모 심의위원 일동